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전략 반영본)

2025. 2.



농림축산식품부

CONTENTS

I. 추진배경

II. 벼 재배면적 조정제 소개

1. 감축 목표
2. 사업 주체
3. 계획 수립 및 이행
4. 지자체 책임 강화
5. 이행 관리

III. 인센티브

IV.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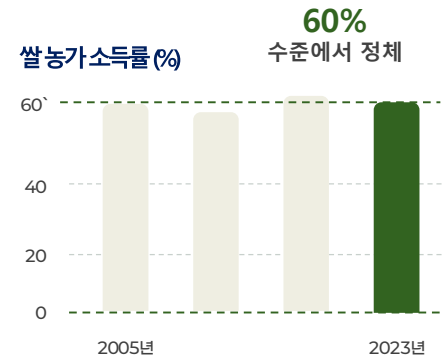
I. 추진배경

1 쌀 공급과잉과 사후적 정부개입이 반복되면서 수급 조절 기능 약화

- 벼 재배면적 감소율보다 소비량 감소율이 더 큰 구조적 공급과잉



- '05년 이후 12차례 시장 격리하는 등 정부개입 반복
- 과잉에 따른 수확기 쌀값 하락은 농가 소득 감소로 직결, 쌀 농가 소득율은 '05년 이후 60%에서 정체



2 벼 재배면적 감축 등 공급과잉 개선 노력은 한계

- 사전 재배면적 감축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전략직불 등) 등 감축 노력에도 벼 회귀 증가

I. 추진배경

3 시장 격리의 한계

- 쌀값 지지를 위해 여러 차례의 시장격리를 단행하였으나, 가격이 하락하여 그 효과는 불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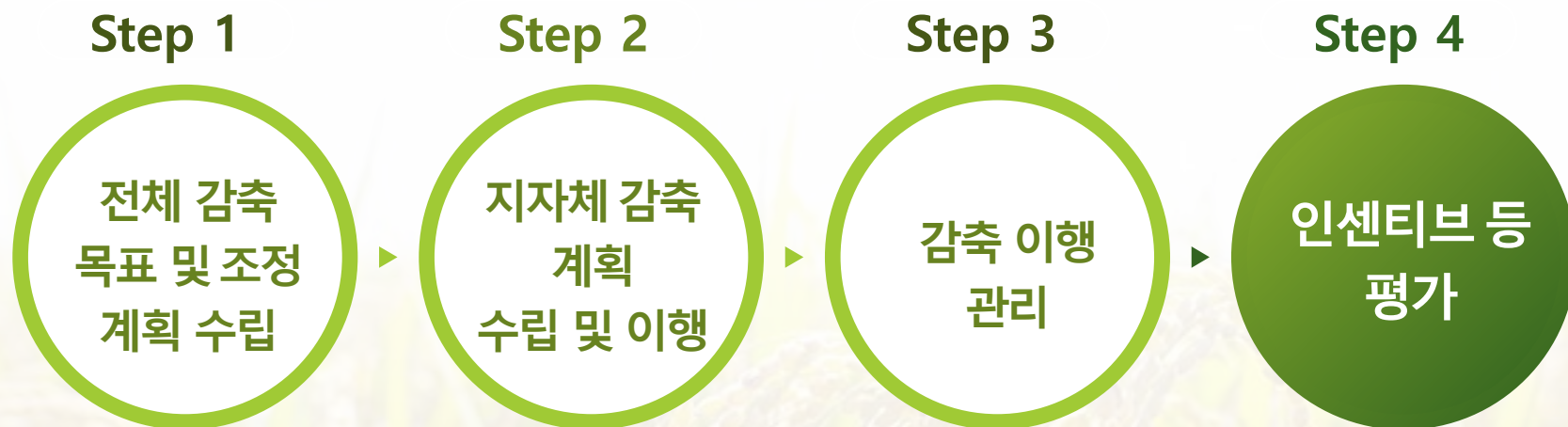
* (2009년) 초과량의 105% 시장격리 ⇒ 수확기 가격은 12%,
단경기 가격은 12.7% 하락

* (2015년) 초과량 전량 시장격리 ⇒ 수확기, 단경기 가격이 각각 9.1%, 12.5% 하락

* (2016년) 초과량 전량 시장격리 ⇒ 수확기 가격은 14.7%,
단경기 가격은 6.9% 하락

⇒ 쌀 산업의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와 수급안정을 위해 사전 면적감축 제도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

II. 벼 재배면적 조정제 소개





1. 감축 목표

- ▶ 감축 목표 : 예상 수요량, 시장격리 물량 등 고려하여 8만ha 목표 설정
- ▶ 지자체 배분 : 총 감축목표 8만ha를 시·도별 쌀 생산량 비중으로 시·도에 배분

* 참고 : 지자체별 '24년 쌀 생산량 비중 및 배분면적(안)

구분	쌀 생산량 비중(%)	배분 면적(ha)
경기	10.1	8,108
강원	4.1	3,256
충북	4.7	3,727
충남	19.7	15,763
전북	15.2	12,163
전남	19.8	15,832
경북	13.4	10,710
경남	8.8	7,007
특광역시	4.3	3,434
합계	100.0	80,000



2. 사업 주체

사·도(시·군·구) 주관으로 벼 재배 농업인 참여를 통해 재배면적 감축



가루쌀, 친환경* 벼는 단수 및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대상에서 제외

- 친환경 벼 인증 면적('24): 36천ha



사·도(시·군·구)는 배정된 면적 내에서
가루 쌀, 친환경 재배면적을 제외한 일반 벼
재배면적을 대상으로 감축

- 흑미, 찰쌀은 잡곡이 아닌 벼 품종 중 하나로 벼 재배면적 감축 참여 대상



3. 계획 수립 및 이행

기본 방향

- ▶ 8만ha 감축을 목표로 지역 여건에 맞는 벼 재배면적 조정 추진
→ 중앙정부의 정책 지원을 강화하여 지자체, 농업인 참여 유도

추진 절차

- ▶ 시·도(시·군·구) 중심으로 감축 계획 수립·이행
→ 감축 유형: ① 농지전용, ② 친환경인증, ③ 전략경관작물, ④ 타작물, ⑤ 자율 감축(부분 휴경 등)
 - 농식품부는 시·도에 **시·도별 감축 면적 배정** 알림
 - 시·도는 농식품부에 **시·군·구별 유형별 벼 재배면적 감축 계획 제출**
 - 시·도(시·군·구)는 지역 특성에 맞게 전략작물, 친환경인증 전환 등으로 감축 추진

[감축 유형별 실천계획 예시]

(단위: ha)

구분	배정면적	농지전용	친환경인증 (20% 적용)	전략·경관 작물	타작물 (전략·경관작물 외)	자율 감축 (부분 휴경 등)
〇〇군	1,000	100	20	480	350	50



3. 계획 수립 및 이행

유형별 감축 전략

1. (농지전용) 실제 개발 행위로 '25년 벼 재배가 불가능한 농지

* 허가 시점이 아닌 실제 개발행위가 일어난 시점(벼 재배 종료) 기준

2. (친환경인증) 일반벼에서 친환경인증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행 인정

* '25년 친환경 인증을 신규로 받은 농지에 한하며, 친환경인증서가 발급된 인증 취득 시점 기준

** 일반 벼 대비 생산단수 감소를 고려하여 감축 실적은 20% 반영

3. (전략경관작물) '25년도 하계 전략작물 및 경관보전 직불에 참여한 신규 농지

→ 하계 전략작물직불 대상 품목 : 두류, 조사료, 가루쌀, 옥수수, 깨(참깨, 들깨)

※ 지역별 전략작물 단지화, 계약재배 등으로 전환 유도

* 대규모 논콩 생산단지 신규 조성, 축산물 생산자 연계 조사료 계약 재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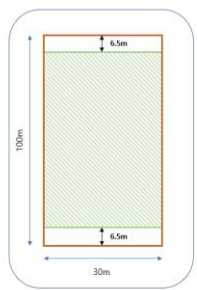


3. 계획 수립 및 이행

유형별 감축 전략

- 4. (타작물) 시·도(시·군·구) 예산으로 지원하는 전략·경관 작물 외 품목(녹비작물 포함)
 - 지자체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등을 활용하여 감축 지원
 - 준고랭지(400m 이상), 계단식 논 등 조건 불리 지역은 밭작물로 전환 유도
- 5. (자율감축) ①~④ 유형 외에 잔여 면적은 '휴경 또는 부분 휴경'으로 이행
 - 벼 이앙 시 테두리 안 심기 캠페인 등 부분 휴경 실천 권장

이앙기 돌림자리 테두리휴경



이앙기 돌리는 자리만 미이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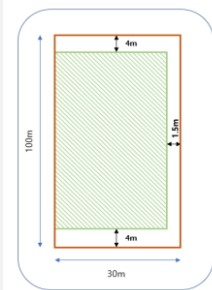
■ 논면적: $100\text{m} \times 30\text{m} = 3,000\text{m}^2$

■ 재배면적: $87\text{m} \times 30\text{m} = 2,610\text{m}^2$

■ 휴경면적: 390m^2

$\Rightarrow 390\text{m}^2 / 3,000\text{m}^2 \times 100 = 13\% \text{ 휴경}$

ㄷ형 테두리휴경



이앙기 돌리는 자리와 논
의 한쪽부분만 미이앙

■ 논면적: $100\text{m} \times 30\text{m} = 3,000\text{m}^2$

■ 재배면적: $92\text{m} \times 28.5\text{m} = 2,622\text{m}^2$

■ 휴경면적: 378m^2

$\Rightarrow 378\text{m}^2 / 3,000\text{m}^2 \times 100 = \text{약} 13\% \text{ 휴경}$



4. 지자체 책임 강화

추진 방향 : 시·군·구 주관 농업인 참여 독려 (지역농협, 생산자 단체 협조)

1. 친환경인증, 전략작물, 경관작물, 타작물 : **농가 대상 지원 사업 적극 활용**
2. 자율 감축(휴경 또는 부분 휴경) : **감축 캠페인 등을 통한 참여 유도**

- 자율감축 참여 기준은 시군구에서 자체 결정

* 예 : 지난해 공공비축미 매입 참여농가, RPC계약재배 농가, 2ha 이상 재배 농가 등

유형별 지자체 관리 방안

농지전용

도시 개발, 농공단지 조성 등으로 2025년도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는 농지 등록 관리

타작물

시도·시군구 자체사업(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 등), 대규모 품목별 전문생산단지 등에 참여하는 농지 등록 관리

자율감축

시도·시군구에서 추진하는 캠페인 등을 통해 감축에 참여하는 농지 등록 관리

※ (전략·경관 작물 및 친환경 인증) 관련 사업 시행지침 및 인증 절차에 따름



4. 지자체 책임 강화

현장 편의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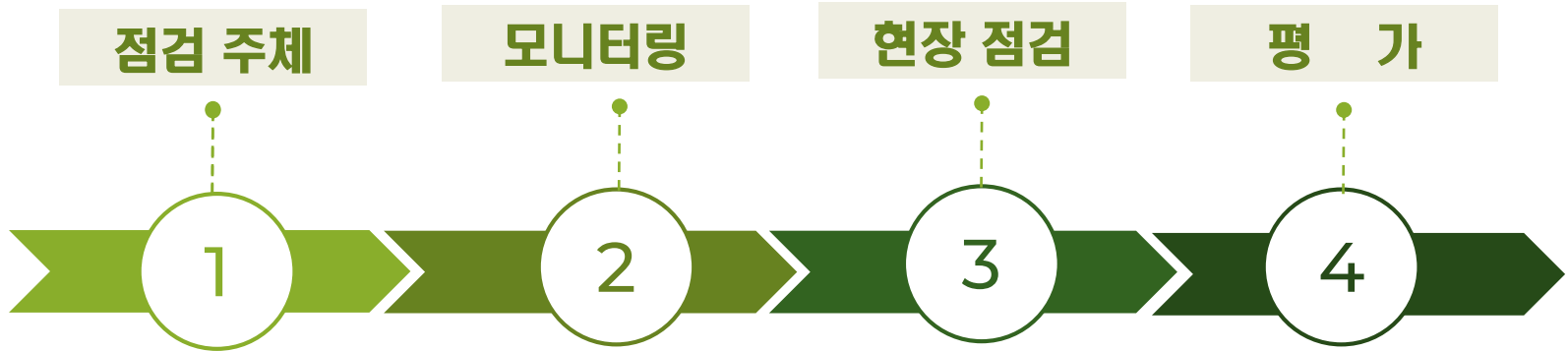
<p>1 친환경·가루쌀 전환</p>	<p>- 일반 벼 농가가 친환경·가루쌀로 전환 시 감축 이행 * 예: 친환경 인증 전환 시 감축 실적은 20% 적용</p>
<p>2. 측정오차</p>	<p>- 감축 대상면적의 1% 이내 오차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이행으로 간주 * 예: 감축 대상면적이 1,000m²이면 이행점검 실측 시 990m² 감축한 경우도 이행으로 간주</p>

<이행관리 예외 규정 등>

1. 작물 재배면적 1,000m² 미만 시 ①한시적 농업인 자격 유지 및 ②직불금 지급이 제외되므로 지자체에서는 1,000m² 미만으로 감축되지 않도록 참여 농업인등 선정 시 주의
2. ①벼 이앙 시 재식밀도를 줄이는 방식, ②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쌀 생산량 감소는 벼 재배면적 감축으로 불인정
3. 가공용 쌀은 일반적으로 다수확 품종에 해당하여 감축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밥쌀로의 부정 유통 우려가 있어 이행으로 불인정



5. 이행 관리



시군구 주관으로
자체 계획에 따라
감축을 추진하고
이행실적 관리

위성, 팜맵 등을
연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이행점검 지원

이행 진행상황
3단계 현장점검
추진

모니터링, 이행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
이행실적 평가

유형별 농지전용, 친환경
인증 전환, 전략·경관작물,
타작물, 자율감축(휴경
또는 부분휴경) 참여실적
등 점검·관리

시군구(읍면동) →
시도 → 중앙정부

확정한 이행면적은 공공
비축미 배정, 정부 지원
사업 등 평가·포상에
활용



III. 인센티브

01. 재배면적 조정제 이행 여부 및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

☑ 공공비축미

- ❖ 벼 재배면적 감축이 우수한 지자체에 공공비축미 우선 배정, 부진한 지자체는 차등 감축 (세부지침 추후 시달)

☑ 전략작물

- ❖ 단가 인상, 면적 증가 등 전략작물직불금 확대*

* 예시 : ('24) 1,865억원, 하계 45천ha → ('25) 2,440억원 / 하계 61천ha

- 신청 면적이 '25년 예산 초과 시 기본직불금 불용액 등 활용
- 전략작물 산업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으로 전략작물 전환 지원

* 전략작물산업화 지원(533억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857억원)



III. 인센티브

☑ 친환경 인증

❖ 공공비축미로 전량 매입, 친환경직불금 확대* 지급

* '25년 단가(만원/ha): (유기) 70 → 95, (무농약) 50 → 75, (유기지속) 35 → 57

☑ 정책 사업

❖ 식량, SOC 지원* 및 지자체, 농협 등 관련 사업 우대

* 전략작물 산업화(533억),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220억), 벼 매입자금(1조3천억)

** 일반농산어촌개발(국비 5,125억), 농촌공간정비(1,045억), 농기계임대(271억) 등

- **지자체**는 자체 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감축 참여 농가 우선 지원**
- **농협**은 **RPC 계약재배, 무이자 경영자금, 농기계 지원** 시 **감축 농가 우대**

IV. 기대 효과

쌀 생산량을 조절하여 과잉 생산으로 인한 쌀값 하락 문제 해결

✔ 공급과잉 해소

쌀 공급량 감소를 통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춰 안정에 기여

✔ 농가 소득 안정

벼 재배면적 조정으로 쌀값이 안정화되면 농가가 적절한 수익 확보 가능

✔ 고품질 쌀 생산 유도

고품질 쌀 생산 유도로 국산 쌀 품질 제고 및 시장 경쟁력 강화

✔ 정부 재정 부담 감소

쌀 과잉 생산으로 발생하는 쌀 비축 등 관리 비용을 줄여 정부 재정 부담 경감

✔ 쌀 소비 감소 대응

1인당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재배면적 조정으로 쌀 수급 균형을 맞추면 생산·소비 간 불균형 문제 완화

감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